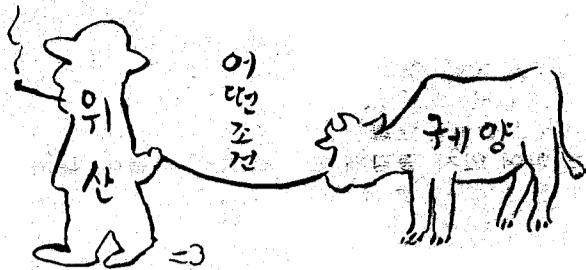


- ◆ 소화성 궤양에는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있습니다.
- ◆ 위장관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이라는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궤양이란 위장관 표면이 상처를 받아 페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원인은 스트레스, 영양장애, 동맥경화, 감염, 유전적 소질, 성격 등 다양한 원인이 관계가 있다고

- ◆ 하나 결국은 위산이나 펩신의 작용이 지나쳐서 위점막에 상처를 입히는 공격 인자와 몸안에서 위 점막을 보호하려는 방어 인자 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소화성 궤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세균을 위점막에서 발견하였고, 이균이 소화성 궤양의 원인균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산이 있는 곳에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궤양이 생길 수 있다.



양석근
<울산의대 교수>

1. 소화성 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궤양이 생긴 후 4주가 되면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100명의 환자 중에서 40명은 자연 치유가 되며 위궤양의 경우는 그보다 낮아 30명 정도가 자연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위내시경을 하면 본인이 모르는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치유된 흔적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들게 됩니다.

소화성 궤양의 치료 목표는 궤양으로 생긴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을 없애고, 궤양을 치료하여 궤양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내과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가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치료의 발달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내과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과적 치료는 안정, 식사요법,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심신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정신적인 불안정이 지속되는 환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

소화성 궤양

자극성 음식, 흡연 삼가해야 心身의 안정이 매우 중요

증상완화·합병증 예방이 치료목표 재발억제 위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치료 해야

분 필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요법은 궤양에 의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극성이 강하거나 짜고 매운 음식은 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나 업격한 식사 제한은 불필요하며 규칙적인 정상 식사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유 속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은 산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궤양의 발생을 촉진하고 생긴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재발과 합병증을 증가시키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음주는 궤양 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는 맥주나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나 커피를 과복이나 자기 전에 먹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 등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억제시키므로 삼가하여야 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약물 치료는 공격인자를 약화시키고 방어 인자를 강화시키며 최근에 소화성 궤양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밝혀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없애는 치료

가 기본입니다. 공격 인자를 약화시키는 약제로서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와 위산분비억제제가 있습니다. 제산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궤양치료제로 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즉시 완화시켜주고 가격이 저렴하여 복용법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궤양치료제로 제산제만 사용하였을 경우 식후 1시간과 3시간 그리고 자기전, 즉 1일 7회 복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치료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산분비억제제로 히스티민 수용체 길항제라 불리는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톡사티딘, 니자티딘 등이 있는데 제산제보다 효과가 강력하여 현재 궤양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입니다. 시메티딘은 가장 먼저 개발된 약으로 부작용으로 노인에서 중추신경 억제로 혼미, 우울증이 오는 수가 있고, 유방비대, 성욕 감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빈도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의 산분비 억제능이나 궤양치료 효과는 비슷하며 복용 방법은 하루 1~2회 투여가 기본입니다.

문에 하루 1회 복용으로도 충분히 궤양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산증 또는 무산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장내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위산 자체가 공격 인자이면서 한편으로 방어인자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삼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약제로서는 오메프라졸, 탄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등이 있습니다.

방어인자 증강제의 기본 작용은 궤양이 생긴 병소를 약제가 덮어 더 이상의 위산, 펩신 등의 공격인자로 부터 위점막을 보호하고, 점액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점막을 덮거나 혹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중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위점막을 지나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몸안에서 프로스타글란дин이라는 위점막보호 작용이 있는 물질을 증가시켜서 패인 위점막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어인자 증강제로 많은 약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쓰는 약제로는 데놀이라 불리우는

〈14면으로 계속〉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山茱萸	炮附子
茱萸子	炮附子
茯苓	川芎
苓根	胡蘿蔴
麥門冬	巴豆
門參	巴戟天
牛膝	杜仲
膝蓋	肉桂
甘草	白芍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祕方	中華秘方合生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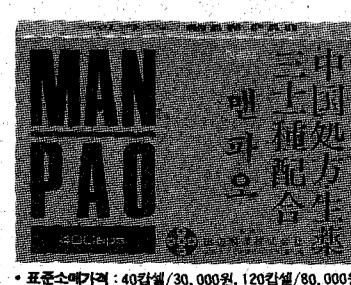
발매되는 대표적인 중국에서 男寶라는 이름으로 크고 희평을 받고 있는 이는 이미 자양강장제로 신허(腎虛)를 보(補)하는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으며 옛부터 쉬운 기력 및 활력 증강에 근거를 둔 처방으로 중년기 이후 쇠약해지기 쉬운 환경의 학사상에 만전해져 내려오는 비방(秘方)과 중국의학 및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マンパオ’란 男宝 무엇인가?

‘マンパオ’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 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원·판매처
한일의약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薬株式会社
日本·大阪
제조원
中国天津市力生製藥廠
中国天津市南開區黃河道491号



• 표준소매가격: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 문의처: (02)464-0861, 학부

<13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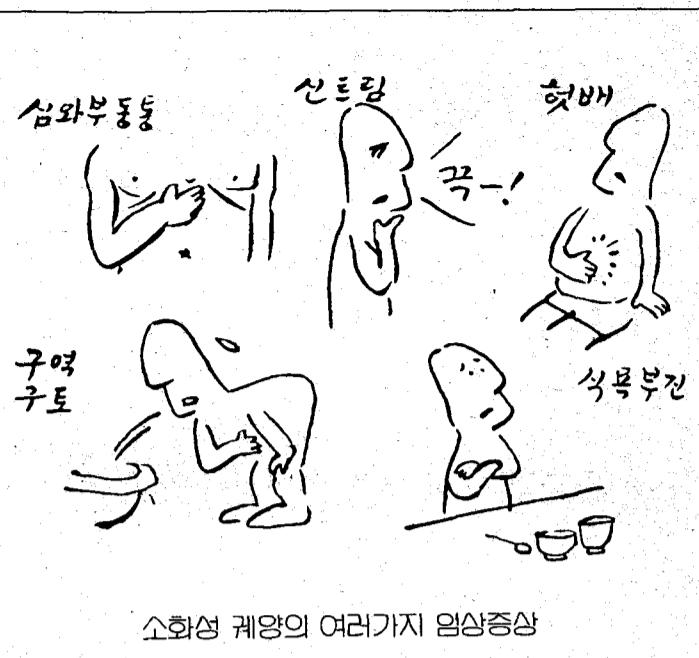
비스무스, 제제, 수크랄페이트, 미소프로스톨, 셀벡스, 레바미피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크랄페이트를 제외하고는 방어 인자 증강제 단독으로는 산분비 억제제에 비해서 통증의 소실, 궤양 치유율 등 어느 점에서나 열등 하므로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산분비 억제제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병용 투여의 이로운 점은 궤양치유율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산분비 억제제만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궤양이 치료된 후에 궤양의 상처가 적으며 재발이 적다는 점입니다.

위궤양 환자의 80%에서 십이지장 궤양의 90% 이상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감염되어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박멸시키면 궤양의 치유 속도와 치유율을 높일 뿐 아니라 궤양의 재발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화성 궤양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양성이면 박멸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헬리코박

터 파이로리 박멸 치료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약제를 2주 이상 치료하여야 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수술적인 치료는 천공이 되거나 내과적으로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유문 협착이 심할 경우에 합니다. 일부에서는 위배출시간이 지연되거나 유문부 기능 부전 등의 원인으로 난치성이거나 단기간에 재발이 많은 경우에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약물 요법의 발달과 내시경적인 지혈법의 보급으로 최근에는 수술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 소화성 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

소화성 궤양의 재발은 빈번히 일어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거나 재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간의 유지 약물요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 치료가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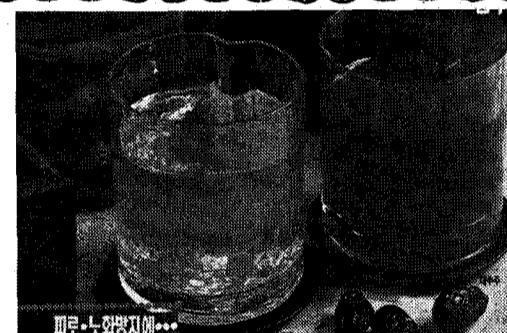
소화성 궤양의 여러가지 임상증상

입니다.

흡연은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재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술과 궤양 재발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심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로는 후추, 고추가루 등의 자극이 심한 향신료나

커피, 콜라 등의 음료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도록 권하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궤양을 유발시키고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재발을 촉진시키므로 가능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경우는 미소프로스톨 등의 궤양 발생을 예방하는

<끝>

<우선세스 가족요리>
자료

대추주

<이렇게 만드세요>

인삼주

1. 인삼주 담그기 : 췌어서 물기를 완전히 없앤 인삼을 깨끗이 췌어 물기를 닦은 유리병에 담고 소주 9컵을 부어 뚜껑을 꼭 덮어 밀봉시킨다.

2. 인삼주 숙성시켜 마시기 : 백삼이나 미삼으로 술을 담갔을 때는 2개월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므로 한번에 1/4컵(소주잔 1잔)정도씩 마시면 좋다. 수삼으로 담갔을 때는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

1. 대추는 겉질이 진한 붉은 빛을 띠고 윤기가 있으며 흡집이 없고 잘 마른 것으로 골라 깨끗이 췌어서 건져 물기를 없앤다.

2. 유리병에 물기를 완전히 없앤 대추를 담고 소주를 부어 뚜껑을 덮어 밀봉시킨다.

3. ②번의 대추술을 2~3개월 정도 그대로 두어 붉은 빛과 맛이 우러나고 숙성이 되면 체에 한번 밟쳐 대추를 걸려 내고 맑은 술만 받아 다시 병 속에 담아 뚜껑을 꼭 덮어 보관한다.

대추주 은은한 향과 맛이 일품인 약술이다. 대추는 예로부터 늙은 것을 막아 주는 신비로운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 또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이뇨제로도 쓰였다. 대추주는 특히 피로가 겹치고 한여름 더위에 지칠 때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삼주 집에서 담그는 대표적인 술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삼의 약효는 스트레스·피로·우울증·고혈압·동맥경화증·빈혈·당뇨병·궤양 등에 좋으며, 피부를 윤탁하게 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인삼주를 담가 조금씩 꾸준히 마시면 스태미나를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 주며 노화방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삼주
&
대추주

PARLODEL®

The advantage of early combination therapy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만족할만한 Parkinson's Disease 치료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투여량을 감소시킵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장기투여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dyskinesia, fluctuation)를 방지합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환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개선시킵니다.

Olsson et al., 19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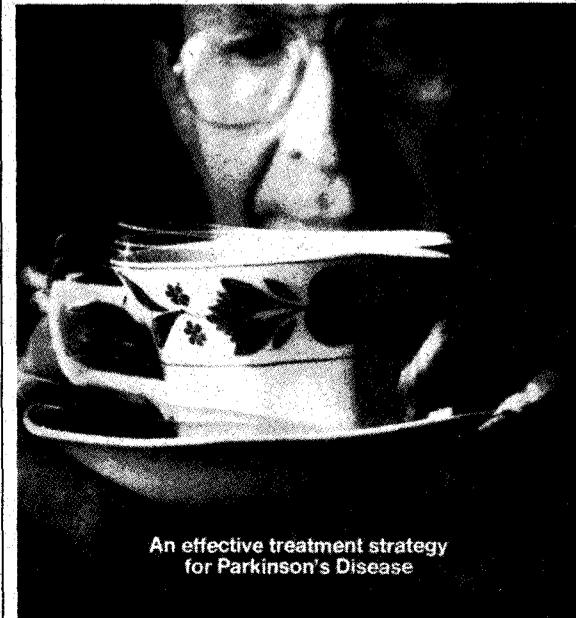
Naikanishi et al., 1989(8)

Grimes et al., 1984(2)

Levodopa

PLUS PARLODEL®

In early combination therapy



DRUG INFORMATION

- ▶ 조성·성상: 1. 조성: 1정 중 메실산 브로모그립틴(U.S.P)...2.87mg (브로모크립틴으로서 2.5mg)
- ▶ 성상: 본제는 백색의 원형정제입니다.

- ▶ 효능·효과: 파킨슨씨병

- ▶ 용법·용량: 팔로델은 항상 식사직후에 투여해야합니다. 투여방법은 질환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적응증에는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고 최대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증요법을 시행함이 좋습니다. 1일 1.25mg~40mg을 증상에 따라 투여하십시오.

-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 맥각알칼로이드에 민감한 환자.
2.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 입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 심근경색증 등 심한 혈관 장애 혹은 그 기왕력 환자
 - 정신병 혹은 그 기왕력자
 - 소화성 궤양 혹은 그 기왕력자 (위장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신장 및 간장질환환자
3.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피로, 졸음, 현기증, 두통, 기립성저혈압, 혼란, 환각, 변비, 구갈, 운동장애,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포장단위: 30T, 100T

- ▶ 보험약가: 373.88원/Tab.

Full Product information is available on request.



한국산도스주식회사

본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Tel.784-2882

약제와 함께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간의 유지 약물요법은 궤양 치료 때와 동일한 약제들을 약절 반 정도의 용량으로 1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궤양으로 인한 출혈, 천공 등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십이지장의 변형 혹은 협착, 1년에 2회 이상의 빈번한 재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지나친 흡연을 계속하거나 소염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유지요법을 할 것을 권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 요법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방법입니다.

산분비 억제제의 개발로 소화성 궤양의 치료율은 향상되어 90% 이상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나 재발율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억제를 위해 서 유지 약물 요법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 치료를 적절히 병용하며 금연 등의 소화성 궤양 촉진 인자를 제거하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